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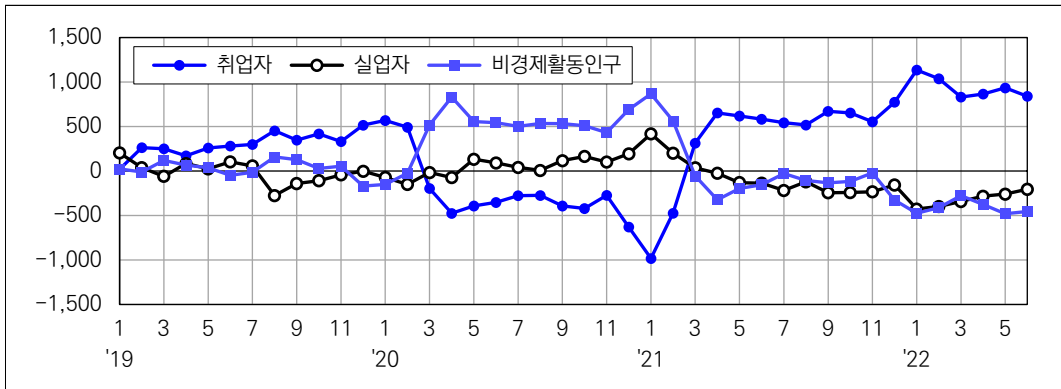
동향분석실

I.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2년 상반기는 고용양적인 측면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용회복세가 이어진 시기였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94만 1천 명 증가했고, 그 외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의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났다. 기저효과로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고용호조가 2분기까지도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비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비대면서비스업 고용과 금리 및 물가 인상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은 하반기 국내 고용의 향방을 점칠 때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특히,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연령·종사상지위·산업 등 부문별로 그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II장에서는 부문별 고용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본다. 먼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취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반기 노동시장을 평가한다. 제III장에서는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와 향후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을 전망한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명, %p)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2022 상반기	1분기	2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취업자	119	618	941	1,001	880	68	417	-94	119	141	-69
실업자	61	-202	-319	-389	-249	-40	-258	-10	12	30	20
비경제활동	117	-122	-413	-388	-437	-34	-146	111	-117	-159	53
고용률	-0.1	1.0	1.8	1.9	1.7	0.2	0.9	-0.3	0.3	0.3	0.1
실업률	0.2	-0.8	-1.2	-1.5	-0.9	-0.2	-0.9	0.0	0.0	0.1	-0.2
일시휴직	-460	-234	-30	-62	3	-98	71	204	-171	-54	17

주: 일시휴직자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증감은 자체 추산 수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KOSIS.

II. 2022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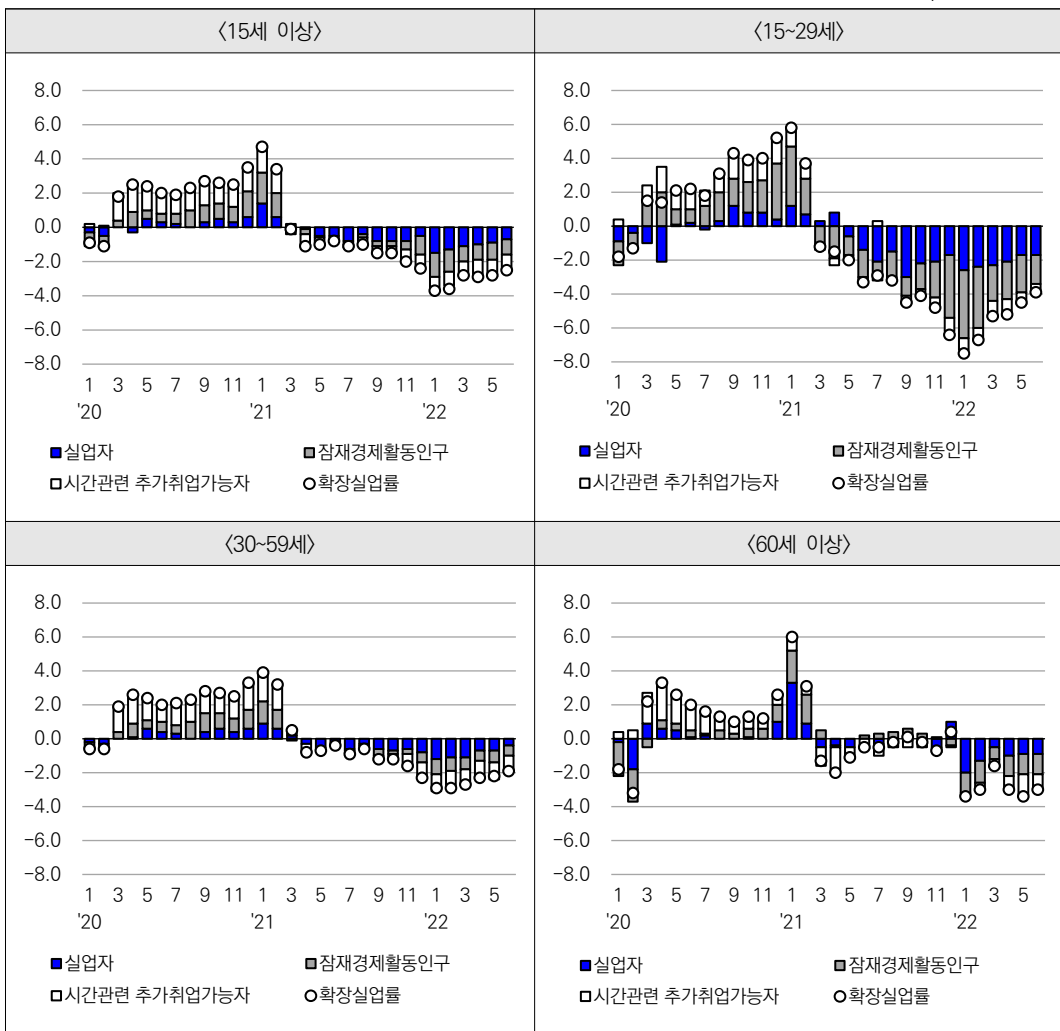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었다. 실업부터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실업자 수는 93만 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만 9천 명 감소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2020년을 제외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매해 증가해 왔는데, 2022년에는 실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2022년 1월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던 기저가 일부 반영되어 42만 7천

명 감소하면서 상반기 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지지효과가 완화되어 실업자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2022년 6월 실업률은 3.0%로 6월 기준으로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상반기 실업 상황은 확장실업률(그림 2 참조)을 통해 살펴보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상반기 확장실업률은 큰 폭의 감소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업자와 더불어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연령대별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와 각 구성 요인의 변동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를 합한 것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확장실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15~29세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6월 기준 19.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예년에 비해 매우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으로 빠르게 유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30~59세에서도 실업자뿐만 아니라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감소하여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고령층 확장실업률은 2021년 하반기 큰 변동이 없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일상로의 복귀는 실업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던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그 추세가 이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상반기 41만 3천 명 감소하여 2021년 하반기보다 감소폭을 더욱 확대했다. 사유별로 보면(표 2 참조) '쉬었음'과 '취업준비'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에 있으며, '육아·가사'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도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멈췄던 인구가 활발하게 노동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상반기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역시 2022년 상반기에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2분기 구직단념자는 43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1년 3분기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그 양상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 원인별로 보면(그림 3 참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크게 증가했던 수요측면 구직단념자가 2022년 상반기에 대부분 해소되어 2019년 2분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급측면 원인으로 구

〈표 2〉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 체	113	643	523	543	458	-225	-89	-155	-388	-437
육아·가사	-77	245	256	246	232	-113	-92	-95	-185	-173
통학	-68	-56	-87	-34	-96	-220	-181	-198	-210	-118
취업준비	-9	64	68	50	64	54	69	16	-46	-102
연로	-10	56	44	56	77	95	153	198	234	198
쉬었음	251	350	268	260	222	-30	-41	-57	-112	-182
기타	26	-16	-26	-34	-40	-12	3	-20	-6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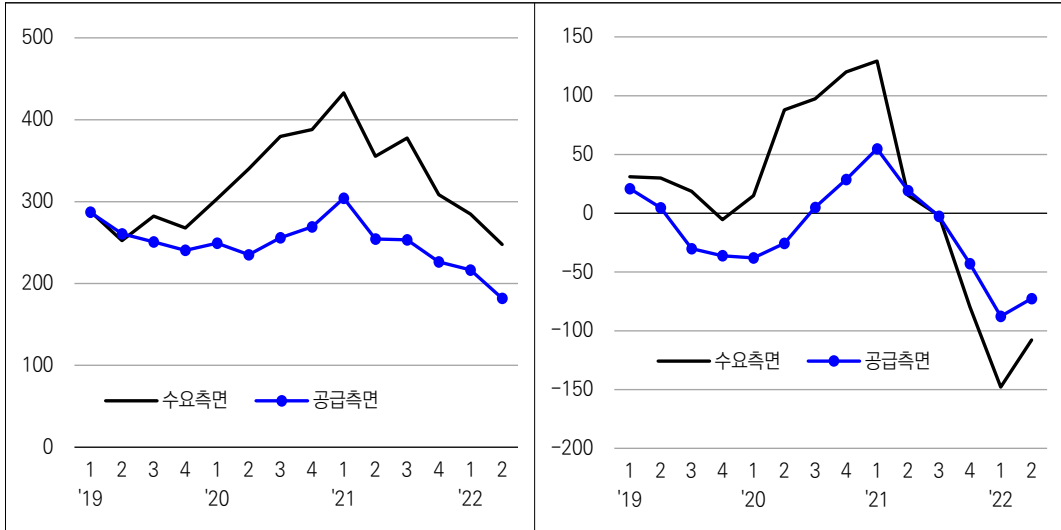
주 :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사유를 포함함.

2)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취업준비 사유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구직포기원인별 구직단념자 수(좌) 및 증감(우)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주 : 1)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년 안에 구직활동은 했으나 노동시장적 원인으로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함.
 2) 수요측면 원인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를 포함함.
 3) 공급측면 원인은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직을 포기한 인구는 코로나19 기간에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는데, 2022년 상반기에 기저분 이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일시휴직자는 3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반응했던 것을 제외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었다. 3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취업 및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계절조정 전월대비 일시휴직자는 3월 20만 4천 명 증가하면서 그 영향이 일부 나타났다. 이후 전월대비 일시휴직자는 4월과 5월에 각각 17만 1천 명, 5만 4천 명 감소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2.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회복세

고용상황을 연령별로 판단해 보면, 청년층(15~29세)과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청년층은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도 꾸준히 관찰됐다. 50대는 2021년 상반기와 다르게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하에서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30, 40대의 고용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된다. 취업자 증감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회복세가 분명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다만, 두 연령대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취업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는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므로, 30, 40대 고용상황이 취업자 증감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부정적인 상황이라 단언하기는 힘들다.

청년층 고용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대 초반(20~24세) 인구는 감소하고 20대 후반(25~29세) 인구는 증가 중이므로 취업자 증가 규모도 20대 후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는 20대 초반에서 6만 9천 명, 20대 후반에서 12만 4천 명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변화

〈표 3〉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상반기			분기		
		2020	2021	2020 상반기	2021 상반기	2022 상반기	2021 4분기	2022 1분기	2022 2분기
15~29세	인구	-149	-141	-129	-135	-195	-153	-184	-206
	취업자	-183	115	-135	36	208	205	254	162
	고용률	-1.3	2.0	-0.9	1.1	3.4	3.1	3.9	3.0
	실업률	0.1	-1.2	-0.7	0.2	-2.7	-2.6	-3.2	-2.2
30대	인구	-145	-144	-137	-150	-133	-131	-135	-130
	취업자	-165	-107	-104	-160	23	-35	27	19
	고용률	-0.7	0.0	0.0	-0.7	1.8	1.0	1.9	1.7
	실업률	0.2	-0.2	-0.2	0.3	-0.9	-1.0	-1.5	-0.2
40대	인구	-67	-70	-73	-71	-72	-65	-74	-71
	취업자	-158	-35	-144	-78	22	2	27	18
	고용률	-1.3	0.2	-1.1	-0.3	1.0	0.6	1.0	0.9
	실업률	0.2	-0.1	0.1	0.1	-0.5	-0.4	-0.5	-0.5
50대	인구	12	-3	28	-13	35	17	26	44
	취업자	-88	66	-64	-1	244	163	259	230
	고용률	-1.1	0.8	-1.0	0.1	2.5	1.7	2.8	2.3
	실업률	0.4	-0.3	0.4	-0.1	-1.2	-0.7	-1.5	-1.0
60세 이상	인구	631	653	615	665	574	626	590	557
	취업자	375	330	388	322	443	324	435	451
	고용률	0.9	0.5	1.2	0.4	1.6	0.4	1.6	1.6
	실업률	0.2	0.2	0.0	0.5	-1.2	0.0	-1.4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를 감안한 고용률은 상반기 각각 3.8%p, 3.9%p 증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초반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주로 여성·전문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간호 관련 인력 고용의 증가로 풀이된다.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주로 비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으며, 증가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순으로 컸다. 도소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용직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하에서도 뚜렷한 규모의 취업자 증가를 보이는 청년층과 달리, 30·40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고용률 회복 속도 또한 비교적 더디다. 그러나 두 연령대 모두에서 고용률이 각각 1.8%p, 1.0%p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 고용률 감소 기저분을 상회하는 수준의 고용률 증가폭을 보였다.

〈표 4〉 20대 인구의 산업·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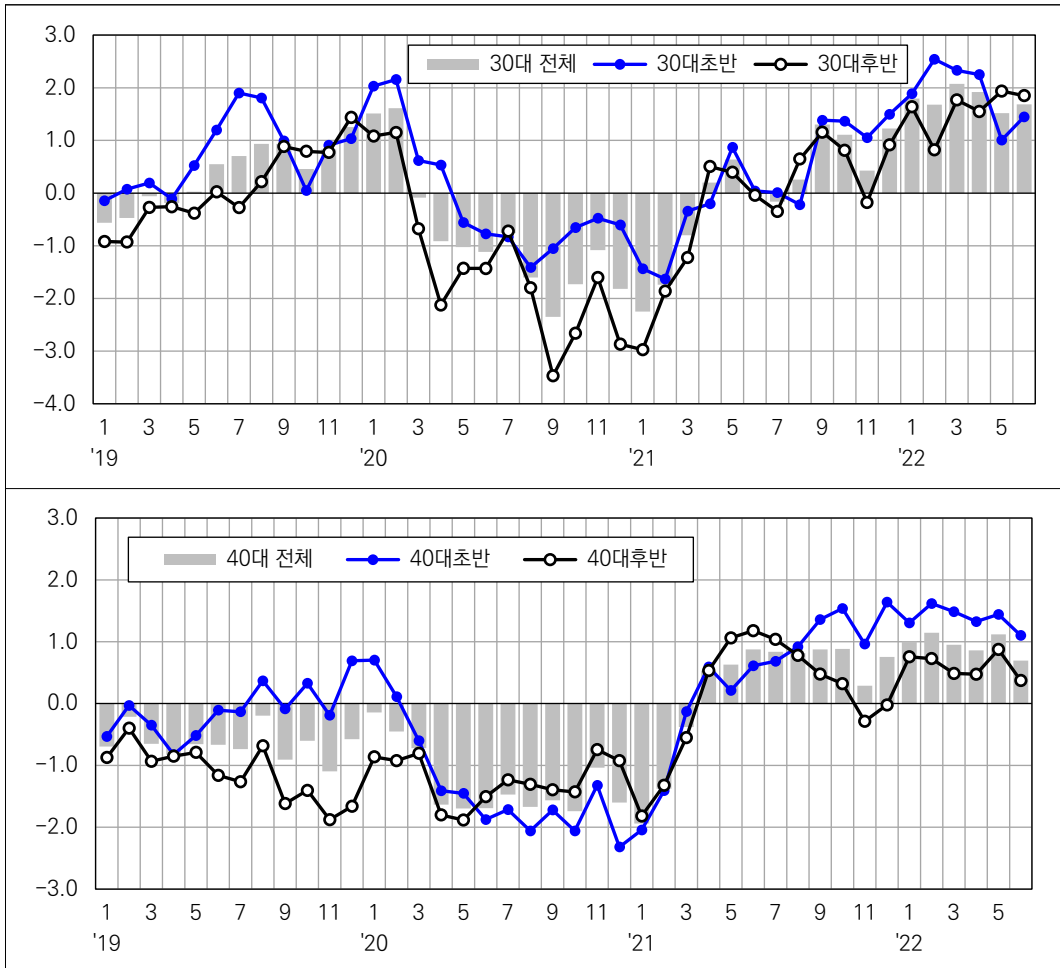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대 초반			20대 후반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전 체	11	64	69	22	115	124
농림어업	3	-3	-2	-6	-3	1
제조업	15	17	-7	0	-1	0
건설업	-4	-3	5	6	-4	10
도소매업	0	5	2	-25	9	21
운수창고업	3	9	11	19	12	4
숙박음식업	-12	-21	6	-9	20	9
정보통신업	14	31	17	15	35	23
금융보험업	-1	8	5	2	-4	-21
부동산업	6	3	-4	-5	-1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	6	4	12	7	6
사업시설관리지원업	2	-15	-6	18	7	-14
공공행정	4	5	10	7	20	22
교육서비스	14	8	-7	-12	5	1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6	20	37	-13	-24	26
예술·스포츠	-26	-16	2	-11	3	5
협회·개인서비스	6	3	-8	1	7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30대(상), 40대(하) 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30대와 40대 모두 초반 연령대는 인구가 증가하고 후반 연령대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부 연령별로 분리하여 취업자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대 초반(30~34세)에서는 상용직, 보건복지서비스업, 전문가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고, 30대 후반(35~39세)에서는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져 관련 직종인 판매종사자, 기능원의 감소가 컸다(부표 2 참조). 40대 역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40대 후반(45~49세) 취업자 감소폭이 큰데, 도소매·자영업자 감소가 특징적이다. 반면, 40대 초반(40~44세)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대면서비스업 임금근로자가 늘고 있어, 비슷한 산업군 내에서도 세부 연령별로 취업자 증감 현황이 달리 나타났다(부표 3 참조).

50대는 성별로 종사 산업의 분포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기에 도 그 영향이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바 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50대 여성의 취업자,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21년 하반기부터 50대 여성 고용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부진했던 대면서비스업 보다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 중이다. 50대 남성 취업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했는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의 증가폭이 이례적이다. 고용변동이 적은 연구개발업보다는 해당 연령·성별 고용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일 확률이 높다.

〈표 5〉 50대 인구의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50대 남성			50대 여성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전 체	9	38	104	-10	94	141
농림어업	-11	-7	-6	-12	-10	3
제조업	-41	-44	8	28	25	3
건설업	45	-4	8	-7	-2	-2
도소매업	-26	-4	-1	-33	0	12
운수창고업	-16	21	13	-2	0	5
숙박음식업	3	-2	-8	-36	-23	-14
정보통신업	-9	7	9	1	3	3
금융보험업	19	9	8	19	26	9
부동산업	-1	0	5	-10	3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	21	31	-6	2	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0	16	9	-4	17	11
공공행정	18	6	5	25	4	10
교육서비스	1	10	17	19	36	3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	1	-4	27	35	43
예술·스포츠	1	-4	2	-7	-4	10
협회·개인서비스	3	4	9	-20	-1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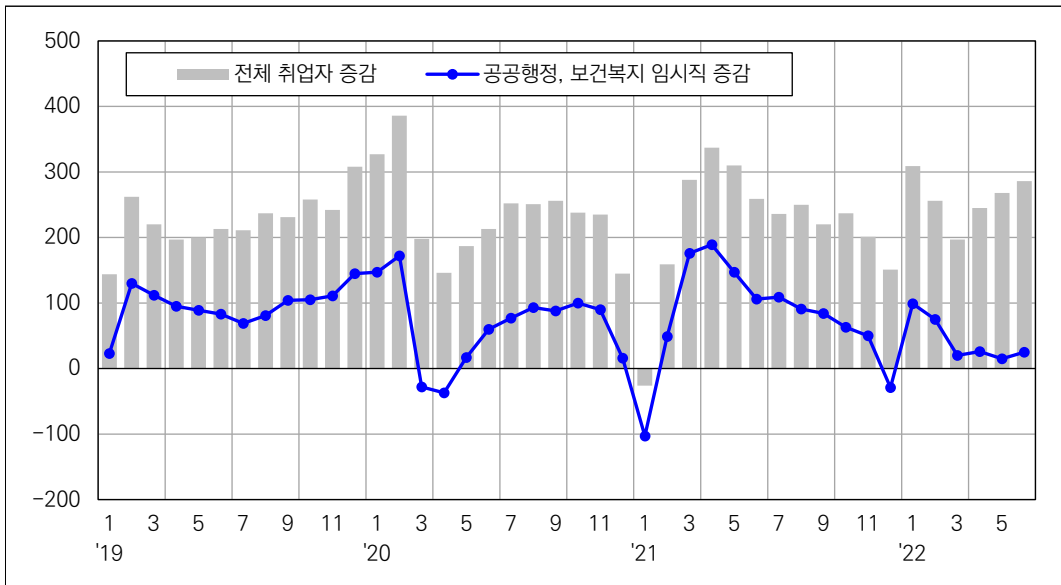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대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하에서도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에도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전히 활발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직접일자리 사업 관련 고용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분 중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 종사자 비중은 크게 줄었다. 반면, 민간부문에 의한 고령층 고용 증가분은 늘었다. 고령층 남성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와 관계된 사업시설 및 지원,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 및 보건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5] 65세 이상 취업자 증감 및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상용직 위주의 고용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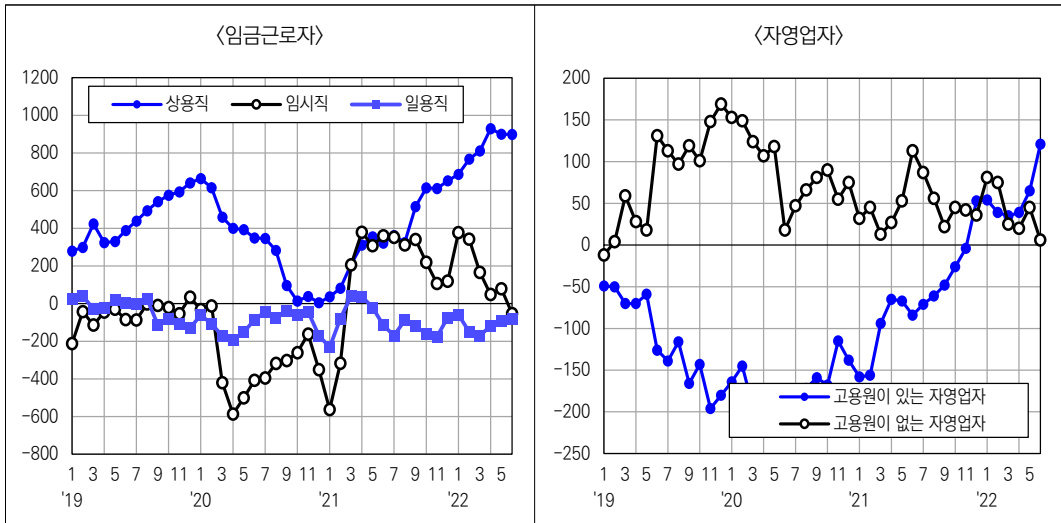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상용직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83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증가폭을 뛰어넘었다. 상용직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복이 비교적 부진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도 상용직은 증가했다. 물론, 증가 규모를 비교하면 제조업과 건설업, 사회서비스업, 비대면서비스업의 상용직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특히,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하다고 알려진 산업에서의 상용직 증가폭이 큰 것도 고무적이다. 상용직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으로 고용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줄었던 것이지, 고용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절조정계열로 보아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고용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고용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은 2022년 1분기 기존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2분기에 회복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2022년 1분기 30만 명가량 증가했던 임시직은 2분기 2만 5천 명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증가폭이 약 10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숙박음식업 임시직의 증가폭도 7만 명에서 1만 명가량으로 축소되었다. 도소매 임시직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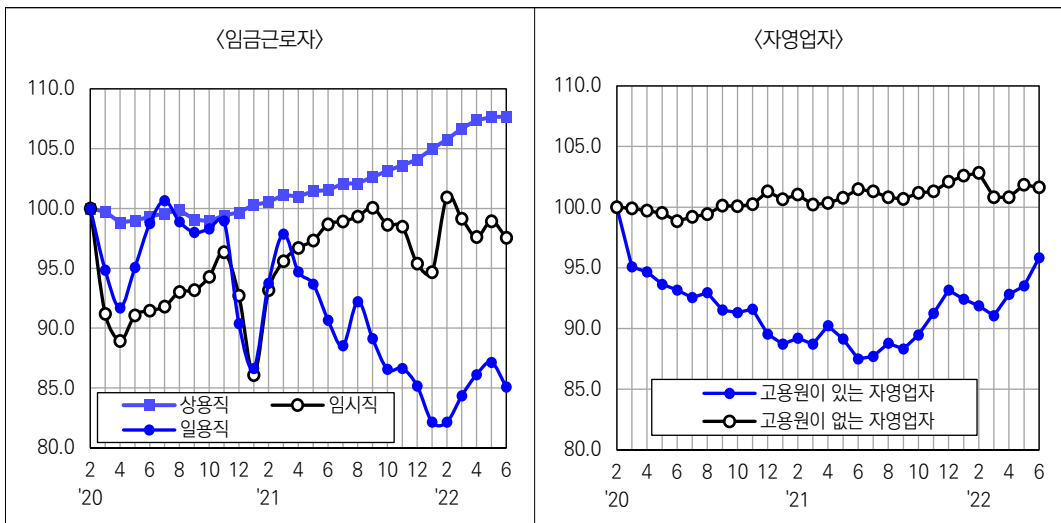
[그림 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월계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계절조정계열)



주: 2020년 2월=100.
자료: 통계청, KOSIS.

폭이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일자리 사업 영향 축소와 비대면서비스업 회복세 둔화가 임시직 고용 회복세의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절조정계열로 볼 때 임시직 고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일용직은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위주로 일용직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일용직 고용비중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일용직이 크게 감소 중이기 때문에 전체 일용직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 산업들의 구인난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 볼 수도 있다.

2019년 이후로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양상이 지속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고용주가 증가 전환되면서 자영업자 고용상황이 일부 변화하였다. 특히, 2분기 고용주 증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6월에는 10만 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고용주 증가는 아니었고 숙박음식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주가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로 봤을 때, 고용주는 증가와 감소를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주가 증가하는 반등 시기가 크게 늦춰진 점을 감안했을 때, 2분기에 나타난 고용주 증가가 고용주 증가세의 신호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자영자 고용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기 하강기에 호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에는 이를 노동시장 내에서 자영자가 거시경제 변화로 인한 고용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났던 자영자 고용은 2분기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중심으로 자영자가 늘고는 있으나 증가 규모는 1분기에 비해 축소되고 있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영자가 여전히 크게 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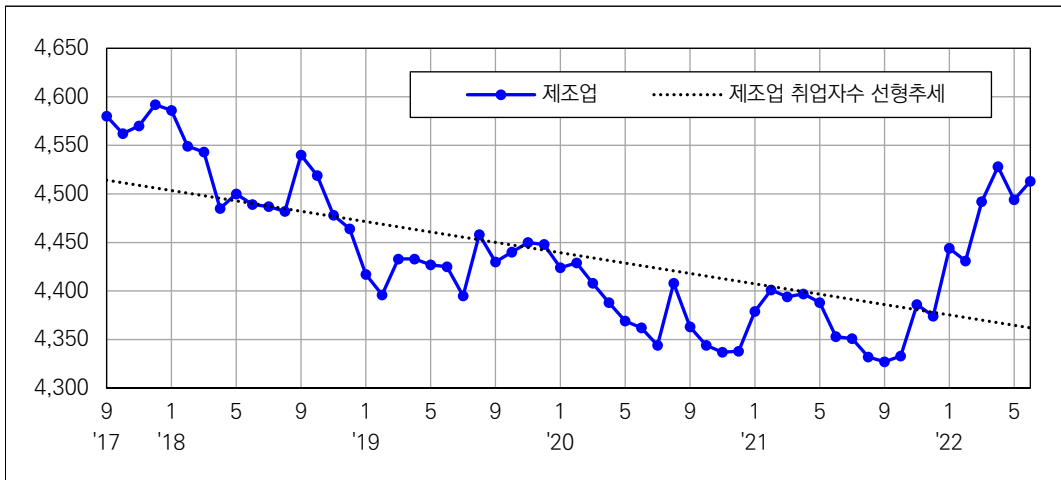
4. 제조업 고용 증가폭 확대

2022년 상반기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22년 1분기 중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2분기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 국외 여건이 수출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비 회복이 지속되면서 2분기 경기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고용에 비교적 유리한 경기 상황에서 2022년 상반기 취업자는 최근 몇 년간의 제조업 고용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게 크게 증가했다. [그림 8]을 보면, 2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제조업 취업자(계절조정)는 전월대비 증가를 이어갔고,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상 제조업 취업자를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상반기 중 9만 9천 명 증가했다(1분기 6만 6천 명, 2분기 13만 2천 명 증가). 2021년 상반기부터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

되면서 고용 회복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본격적인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연말 이후이다. 지난 몇 년간의 감소세에서 돌아서 2021년 11월 증가로 전환된 제조업 취업자는 2022년 6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3~6월 내내 1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9 참조). 제조업 고용 증가세는 경찰 외 다른 자료들에서도 확인할

[그림 8]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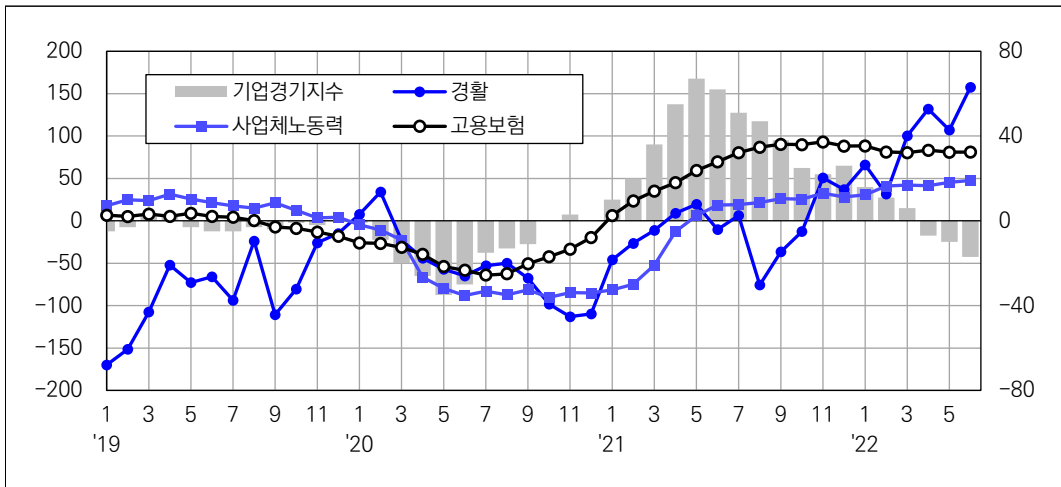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9]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1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2021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상반기 고용보험 피보험자 8만 2천 명 증가, 사업체 종사자 수 4만 1천 명 증가). 기저영향을 감안하여 지난해 상반기에도 제조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2022년 상반기 제조업 고용 증가는 실제 제조업 고용 성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제조업 세부 업종별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먼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좋았다. 이 업종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투자 증가, 전방산업 업황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로 고용 증가를 지속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큰 폭의 증가를 지속했고, 이에 힘입어 피보험자와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폭을 확대하며 상반기 중 각각 1만 2천 명, 1만 3천 명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전방산업에서 공작기계 수요가 이어지고,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기계 수출도 증가하면서 기계장비 고용도 상반기 내내 증가했다.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이어진 업종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일·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이슈, 전기차 생산 및 수요 확대 등으로 이차전지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금속가공 제조업도 전방산업에서의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 고용이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 증가를 이끈 이 업종들의 고용 흐름은 모든 자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고용 비중이 큰 이 업종들은 하반기 업황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없다면 현재의 고용 증가세가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그에 따라 제조업 전체 고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중 제조업 세부 업종별 고용 변화에서 한 가지 특징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및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고용 증가다. 상반기에 오미크론 확산이 심화된 시기에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시기에 들어서도 바이오 의약품, 기존 의료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고용 상황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였다.

한편 상반기는 자동차 제조업에 대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SUV 및 친환경차 인기는 높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에 2분기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6월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수출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상반기 중 자동차 제조업은 고용 개선이 나타났던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고, 피보험자 수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 하반기 경기와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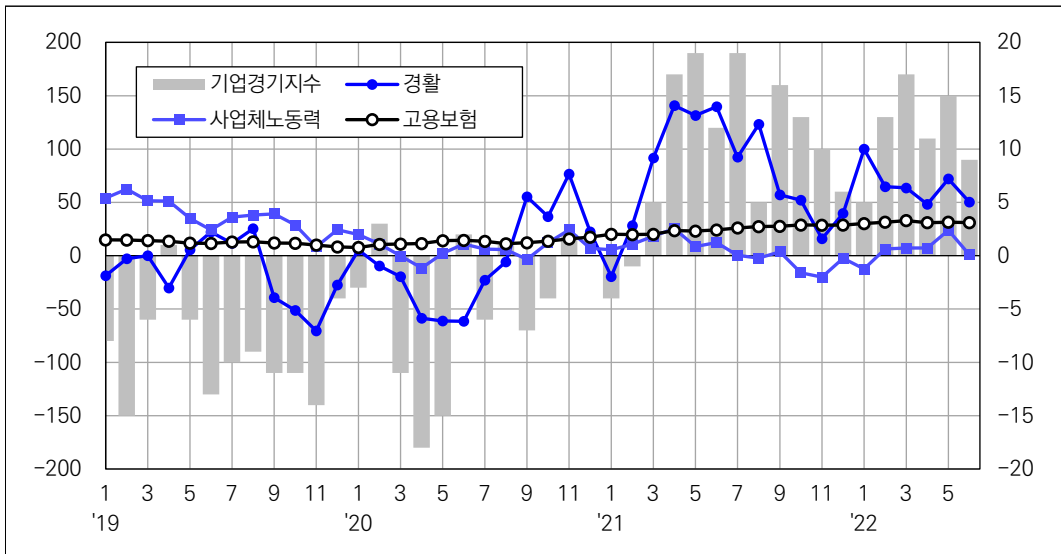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해소 여부에 따라 고용 상황도 다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건설업 고용 증가세 지속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만 6천 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자료를 보아도 피보험자는 상반기 내내 전년동월대비 3만 명 이상씩 증가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2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6월까지 증가를 이어갔다. 건설 경기를 보면 건설기성액(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 기준)은 1분기 중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를 지속하다 5월 들어서야 증가로 전환되었다. 한편 건설 수주액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기 건설수주액은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고, 4~5월 평균 13.3% 증가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증가했지만 건설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 하반기 건설 경기를 제약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건설업 고용은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하반기 건설업 고용은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0] 건설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6. 대면서비스업의 고용둔화 지속

2022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1,95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9.5만 명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10만 명 감소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3만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취업자 감소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 업종에서 취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용이 감소했던 업종에서는 여전히 고용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표 6〉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예술·여가,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전 체	2020년 1~6월	-100	-241	66	-6	57	-20	
	2021년 1~6월	31	-269	69	124	211	-102	
	2022년 1~6월	695	-5	112	235	376	-7	
지 위 별	상용	2020년 1~6월	366	124	29	124	48	33
		2021년 1~6월	126	-106	5	135	117	-25
		2022년 1~6월	634	81	47	214	269	25
	임시 일용	2020년 1~6월	-382	-289	4	-108	39	-63
		2021년 1~6월	24	-83	26	14	125	-58
		2022년 1~6월	67	-35	5	16	92	4
	자영업	2020년 1~6월	-84	-75	33	-23	-30	11
		2021년 1~6월	-120	-80	38	-25	-31	-19
		2022년 1~6월	-6	-51	61	4	15	-35
연 령 대 별	15~39세	2020년 1~6월	-217	-92	34	-43	-97	-18
		2021년 1~6월	-104	-70	45	42	-56	-65
		2022년 1~6월	205	-40	39	42	161	2
	40~59세	2020년 1~6월	-116	-190	8	7	45	-3
		2021년 1~6월	-83	-217	2	31	145	-47
		2022년 1~6월	266	6	37	125	106	5
	60세 이상	2020년 1~6월	233	41	25	31	109	1
		2021년 1~6월	218	18	22	52	122	9
		2022년 1~6월	224	29	36	67	109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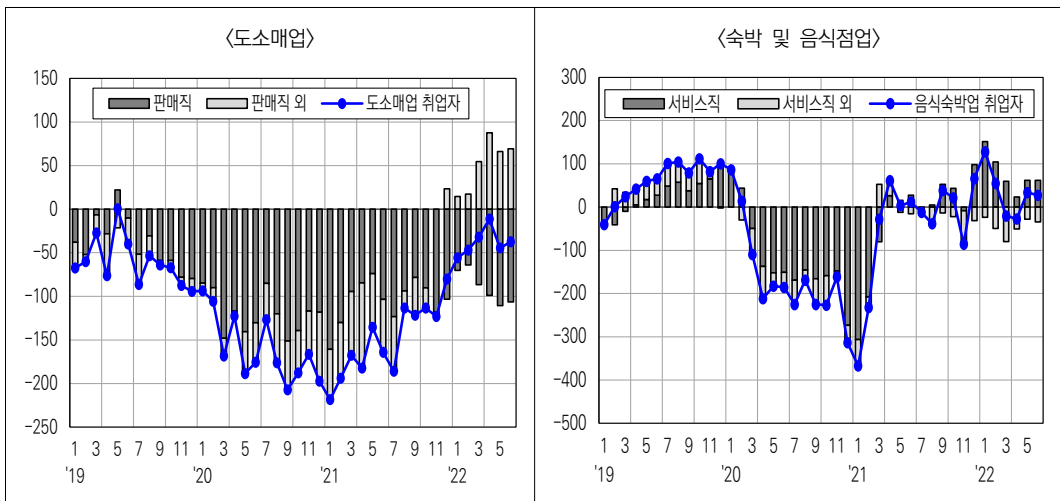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추이와 관계없이 2019년부터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업종이다. 2020년 상반기에 전년동월대비 14.2만 명, 2021년 상반기에 17.7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도소매업은 2021년 8월부터 점차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2022년 상반기에는 3.8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고용의 회복을 주도한 것은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직종이 아닌, 사무직(경영·회계), 기계장치(운전·운송) 등 비판매직종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소비가 자리 잡게 되면서, 판매직종보다는 비판매직종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의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3만 명 증가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22만 명씩 감소한 이후로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도 고용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요리, 여가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직인데 2021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면서 2022년 상반기 취업자는 7.7만 명 증가한 반면, 판매직(매장판매), 단순노무(재료손질) 등 비서비스 직종은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 상반기 4.4만 명 감소하였다. 매장 내 키오스크 도입으로 판매직 고용을 대체하고, 재료손질을 최소화하는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비서비스 직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모두 고용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물가 상승에 따라 영업환경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물가 상승의 정도에 따라 고용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1] 직종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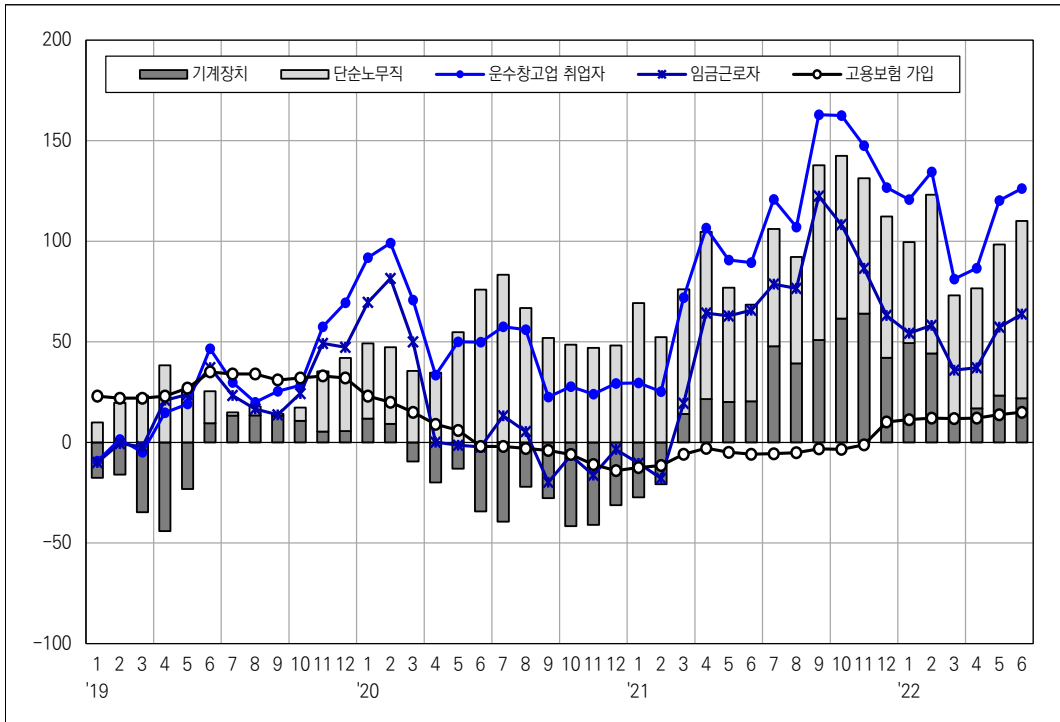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운수창고업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상반기에도 높은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졌는데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소비가 익숙해지면서 운수창고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취업자가 매월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통계 기준으로 운수창고업 피보험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운수창고업에서 기계장치 직종 취업자¹⁾와 단순노무 직종 취업자²⁾가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는데 2022년에는 주로 단순노무 직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택배 및 음식배달 등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 직종 특성상 취업자 증가폭 내에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운수창고업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최근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2] 운수창고업 취업자, 임금근로자 및 피보험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 1) 운전운송관련 기계조작 직종 : 택시, 버스, 화물 및 특수차, 대리운전원, 지게차, 크레인 등.
- 2) 운전운송관련 단순노무 직종 : 하역 및 적재, 이삿짐, 우편집배, 택배, 음식·신문배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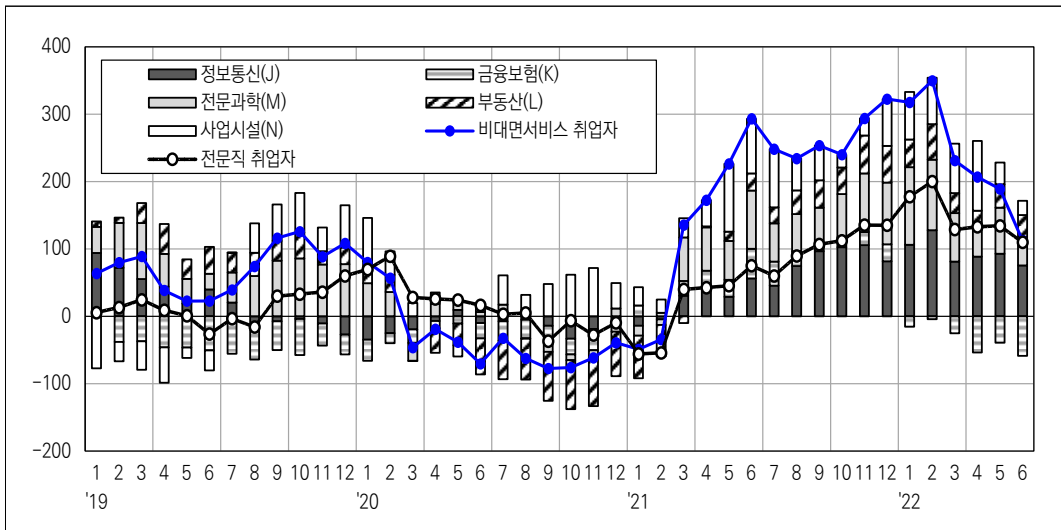
7. 전문직 중심의 비대면서비스 취업자 대폭 증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비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했는데 2022년에도 활발하게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3.5만 명 증가했는데 2021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2년 1월 기준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이후 금융보험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2022년 상반기 취업자가 3.3만 명 감소했는데 2분기 기준 취업자 감소가 5만 명 발생하면서 최근 고용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감소하는 취업자 대부분이 사무종사자 직종에 포함되고 있는데 최근 은행의 영업점포 폐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정보통신업은 2022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9.5만 명 증가하였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매월 6만 명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초기에는 주로 20, 30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현재는 30, 40대 남성 취업자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2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7.5만 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매월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남성 비중이 높은 업종이지만 최근에 여성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13] 정보통신, 금융보험업 등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정보통신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대면서비스 중 취업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직종은 전문직 취업자이다. 과학 및 정보통신, 공학 등의 전문가 및 관련직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전문직 취업자는 비대면서비스 내에서 2022년 상반기 약 15만 명 증가하였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과 방송 콘텐츠 제작 산업이 정보통신업에 포함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및 건축기술 등 전문 분야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비대면서비스 고용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15~39세 취업자를 중심으로 고용둔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비대면서비스업에서 매월 10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해 왔으나, 2022년 3월부터 점차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현재는 취업자 감소로 전환되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업 취업자는 매월 3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시설지원임대 산업은 2022년 1~4월까지 매월 7만 명이 넘게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최근 5~6월 취업자 증가폭이 2만~3만 명으로 주로 청소, 경비 관련 중고령층 고용이 감소한 영향이다. 따라서 전문직 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비대면서비스 고용은 2022년 초반을 고점으로 점차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8. 청장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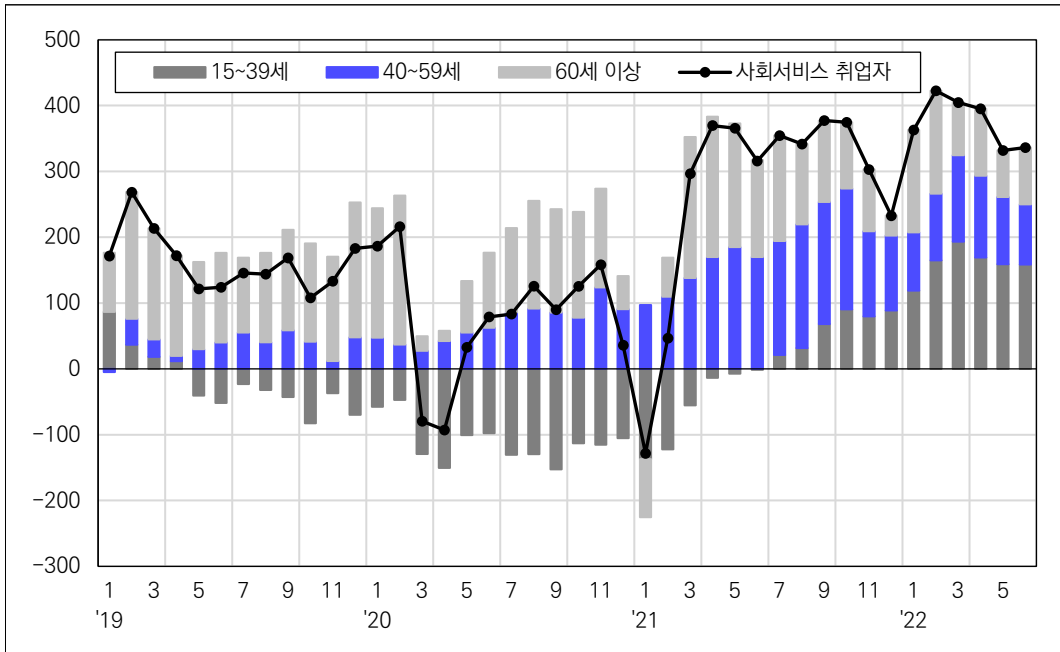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진 사회서비스 분야는 2022년 상반기 37.6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남아 있는 2021년 1~2월을 제외한 2021년 상반기(3~6월)의 취업자 증가(+37.7만 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까지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15~39세 고용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점차 취업자 증가로 전환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약 15만 명의 15~39세 취업자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및 교사로 새롭게 임용되거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의료시설, 돌봄 관련 전문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발생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분야 중 공공행정은 2020년 하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충한 것에 대한 기저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후 추세를 회복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15~39세 연령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7.3만 명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체노동력조사 피용자 증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증감 수치보다 1~2개월 선행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2022년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다시 감소함에 따라, 공공행정 취업자의 증가폭 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2022년 상반기에 약 8만 명 증가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그림 14] 연령대별 사회서비스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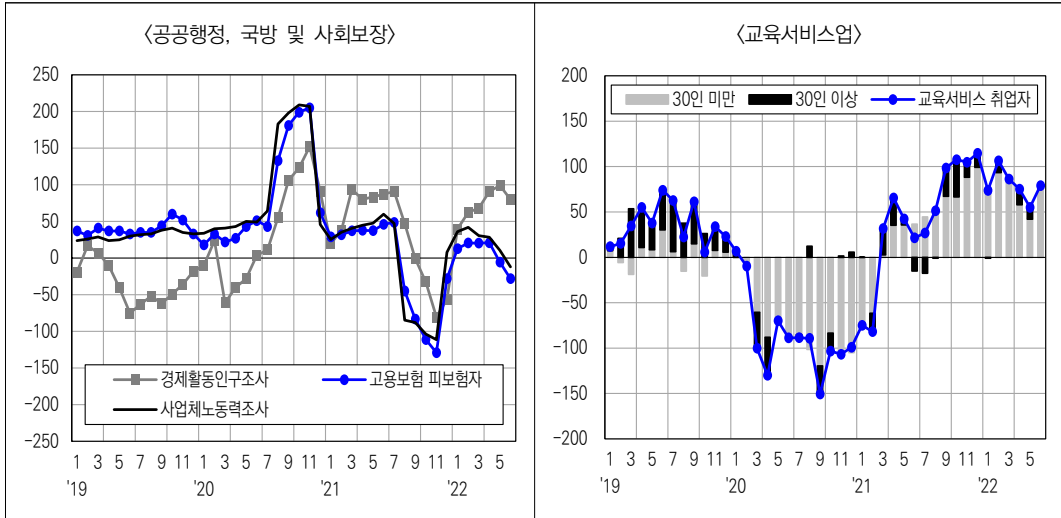
주: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공공행정(O), 교육서비스(P),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1년 동안(2020년 2월~21년 2월) 고용이 감소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이 증가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까지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주로 종사자 규모가 30인 이상에 해당하는 정규교육시설에서 나타났고, 이후 1년 동안 취업자가 감소하고 다시 1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은 대부분 종사자 규모가 30인 미만인 학원 및 교습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이 장기적으로 개선된 것보다 기저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특성에 의한 변화를 고려해 보면 현재의 고용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2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2.3만 명 증가했는데, 1분기 25.1만 명, 2분기 19.5만 명으로 최근에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던 2020년(전체 11.5만 명 중 60세 이상 9.6만 명, 83.9%), 2021년(20.2만 명 중 13.5만 명, 66.8%)과 달리, 2022년에는 9.4만 명 증가하여 고령층의 비중이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15~39세 연령대에서 전문직, 1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새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림 15] 공공행정 취업자와 종사상 규모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표 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59	141	143	252	223
연령 대별	15~39세	19	-24	-43	18	76
	40~59세	58	64	59	91	53
	60세 이상	83	101	127	143	94
성별	남성	15	26	13	49	44
	여성	146	115	131	204	179
종사자 규모	1~99인	133	116	145	250	157
	100인 이상	28	25	-1	2	66
종사 직종	전문직	25	-21	10	63	97
	사무직	11	13	-4	10	13
	서비스직	77	92	30	71	48
	단순노무직	37	58	101	101	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2022년 상반기는 지난해 2/4분기부터 시작된 고용회복세가 이어진 시기였다.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4분기까지 고용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하겠으나, 기저효과가 반대로 돌아선 2/4분기 이후에도 견조한 고용회복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가히 고무적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선 2021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올해 6월까지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계절조정계열로도 올해 3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 대비 2022년 6월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02.4% 수준에 이르러 있다.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연간 고용 전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는 전망기관별로 2022년 2.7~2.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이전의 성장률 전망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다만, 해당 대내외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은 상반기에도 존재했으나 고용회복세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상황과 고용시장 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다 볼 여지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여파에 따른 내수 악화의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용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비대면 고용의 증가세 지속, 재정지원의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양호한 수준의 고용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6,918	27,628	27,273	27,858	28,714	28,016
(증가율)	0.4	2.3	1.4	3.5	2.0	2.7
(증감수)	119	618	369	941	546	743
실업률	4.5	2.9	3.7	3.2	3.3	3.3
고용률	59.8	61.2	60.5	61.6	62.1	61.9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기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본원의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2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46천 명 수준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취업자 증가분 941천 명을 반영한 2022년 연간 취업자 수는 743천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최근의 코로나19 신종변이 확진자 수 증가와 거시경제적 하방위험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작금의 고용회복세가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충을 포함한 고용·노동정책의 실효제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신종변이의 확산세 진정, 글로벌 경제의 안정세와 내수 개선이 이루어지고,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고용 회복 추세가 2023년에도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KL**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반기			분기		
		2020	2021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2022 상반기	2021 4분기	2022 1분기	2022 2분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	44,785 (281)	45,080 (295)	45,018 (296)	45,142 (294)	45,227 (209)	45,178 (295)	45,211 (223)	45,242 (194)
	취업자 (증감)	26,904 (-218)	27,273 (369)	26,918 (119)	27,628 (618)	27,858 (941)	27,611 (660)	27,369 (1,001)	28,347 (880)
	(남성 증감)	(-82)	(166)	(57)	(276)	(457)	(324)	(471)	(443)
	(여성 증감)	(-137)	(202)	(62)	(342)	(483)	(336)	(529)	(437)
	고용률	60.1	60.5	59.8	61.2	61.6	61.1	60.5	62.7
	남성	69.8	70.0	69.4	70.7	71.2	70.7	70.3	72.1
	여성	50.7	51.2	50.5	52.0	52.3	51.8	51.1	53.5
	실업자	1,108	1,037	1,254	820	935	833	990	880
	실업률	4.0	3.7	4.5	2.9	3.2	2.9	3.5	3.0
	남성	3.9	3.6	4.3	2.9	3.0	2.8	3.2	2.9
여성	4.0	3.8	4.7	2.9	3.5	3.1	3.9	3.2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6,773 (455)	16,770 (-3)	16,846 (117)	16,694 (-122)	16,433 (-412)	16,734 (-155)	16,851 (-388)	16,015 (-437)	
15~ 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	36,639 (-153)	36,498 (-141)	36,548 (-138)	36,448 (-144)	36,308 (-240)	36,426 (-148)	36,347 (-223)	36,268 (-257)
	고용률	65.9	66.5	65.8	67.2	68.1	67.4	67.4	68.9
	남성	74.8	75.2	74.6	75.8	76.6	76.0	76.0	77.3
	여성	56.7	57.7	56.8	58.5	59.4	58.6	58.6	60.3
	취업자 (증감)	24,130 (-455)	24,280 (150)	24,058 (-103)	24,503 (403)	24,739 (681)	24,541 (463)	24,496 (747)	24,981 (6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30대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30대 초반			30대 후반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30대 인구 증감		18	39	62	-169	-176	-195
30대 취업자 증감		-1	58	111	-159	-112	-88
성 별	남성	-13	21	57	-74	-57	-65
	여성	12	36	54	-85	-55	-24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3	61	102	-76	-67	-47
	임시직	-6	7	-3	-23	-4	-38
	일용직	-9	-13	-5	-14	-16	-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	-5	-5	-13	5	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	7	16	-24	-22	-11
	무급가족종사자	-5	0	6	-9	-9	3
산업별	제조업	4	3	12	-45	-60	-20
	도소매	-20	-6	-21	-9	-41	-47
	숙박음식	12	-9	-27	-6	0	4
	정보통신	-19	9	19	-10	12	15
	전문과학	8	10	17	-2	5	7
	교육서비스	-3	-3	-9	-21	21	13
	보건복지	5	27	34	-18	-10	-25
직종별	전문가	-3	10	46	-61	8	13
	사무종사자	-10	21	33	-24	-9	-45
	서비스종사자	-5	17	33	-12	-5	4
	판매종사자	4	-11	-28	-19	-35	-36
	기능원	-3	3	7	-13	-42	-38
	장치기계	-2	15	15	-30	-27	-6
	단순노무	17	3	5	-10	-6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3〉 40대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40대 초반			40대 후반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40대 인구 증감		70	85	86	-142	-153	-158
40대 취업자 증감		39	111	121	-117	-103	-98
성 별	남성	31	75	52	-68	-69	-42
	여성	9	36	69	-49	-34	-56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60	119	122	-41	-41	-2
	임시직	2	-3	-20	-38	5	4
	일용직	-3	-2	6	-3	-10	-2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7	2	20	-17	-38	-2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7	4	-6	-5	-2	-39
	무급가족종사자	-9	-10	-1	-14	-17	-22
산업별	제조업	55	35	8	-46	-51	-11
	건설업	-7	7	10	-2	2	-10
	도소매	-21	-3	42	-50	-70	-44
	운수창고업	23	14	-5	-3	20	24
	숙박음식	-31	5	24	-23	-13	-4
	교육서비스	-7	-12	-10	0	8	-3
	보건복지	19	33	18	8	22	-5
직종별	전문가	18	55	43	0	9	-18
	사무종사자	49	20	20	-30	-26	-1
	서비스종사자	-16	27	43	-17	3	-18
	판매종사자	-13	-12	3	-37	-62	-56
	기능원	-10	-12	14	-5	1	-14
	장치기계	39	37	1	-36	-29	-12
	단순노무	-19	-9	-6	12	21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